

“대야농협, 국가보조금 사업 부당사용”

대야농협 비대위, 총체적 관리 부실 지적 수사 촉구

대야농협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농협의 허술한 행정 및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6일 비대위는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조금 부당사용 및 미폭처리장 운영 등 총체적 부실에 대해 관계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농협이 국고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 보조금을 환수당하고 5년 동안 국고지원이 제한됨은 물론 2017년도 결산에서 1천톤의 쌀이 사라지고 제주도 쌀 거래와 관련 1억원이 넘는 손실을 자초했다”고 성토했다.

또 “2017년 농협이 수매한 물량에서 30%를 곡주와 아무런 계약이나 통보 없이 일괄 수탁 후 일방 처리해 개인 손실을 끼치는 등 허술한 행정과 방

만한 경영으로 조합의 손실은 물론 조합원과 농민들에게 그 피해를 입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야농협은 올해 6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금 부당사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부당사용해 9억여원을 회수당했다”며 “이는 5년간 국고지원 제한이라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비대위 관계자는 “군산시는 대야농협의 국가보조금 사업의 부당사용을 강력히 고발조치하고 검찰과 경찰 등 사법 당국은 대야농협의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명백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힘을 보



대야농협 비대위가 대야농협의 허술한 경영에 의혹을 제기했다.

태달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야농협 조합원은 “오늘 비대위에서 밝힌 대야농협의 문제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야농협은 올해 6월 감사결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을 위반에 따라 보조금 반납도 문제지만 오는 2023년 6월까지 향후 5년 동안 보조금 지원 사업이 제한돼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3년 상승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일 2018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 청렴도 점수는 2015년 6.85점, 2016년 7.39점, 2017년 7.52점, 2018년 7.80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상승 폭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시 청렴도 등급은 작년과 동일하게 3등급을 유지하였는데 전국 75개 시 단위의 청렴도 평가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평가되며, 올해부터는 기간 간 지나친 경색 유발로 인한 부

작용을 우려하여 순위는 발표하지 않고 등급만 발표했다. 특히 정현을 익산시청 취임 전인 2015년도에 5등급이었던 익산시 청렴도가 취임 이후부터 올해까지 3등급으로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익산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많은 시책들을 추진해 왔으며, 먼저 청렴을 숭수범하기 위해 매월 1일을 청렴데일로 정하고 출근길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소식지를 배부하며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청렴 마인드를 청내에 확산시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29개 읍면동을 감사담당관이 직접 찾다니며 청렴사회교육을 실시하고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신규 공무원, 인허가 담당자 등을 상대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익산시새마을회와 청렴실천운동 협약을 맺어 서동축제 및 국회축제 때에는 민관 합동으로 청렴운동을 펼쳐 청렴 익산 건설에 매진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청렴문자 발송, 청내 청렴송 방송, 부서별 청렴시책, 팔레타 청

렴콘서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도 제고에 힘써왔다. 특히 민선7기 핵심과제로 진절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체계 행정을 위한 노력이 외부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작은 실천들이지만 참된 공직자로서 청렴 익산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이 모인다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익산시를 만들 수 있다”며 “지속적인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2019년도에는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어린이집

보육사업 평가회 개최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는 군산시가 2018년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사업 평가회를 진행했다.

6일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에 따르면 수송동 A부예 2층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경구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군산시의 명품 보육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평가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보육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골고루 누리는 행복도시를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장점마을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 반출 금지 명령

익산시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장점마을 인근의 비토공장인 (유)금강농산에 대해 폐기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폐기물 매립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폐기물 매립여부 확인 및 성상조사를 위해 총 5개 지점을 굴착하였으며, 식당 내·외부, 앞마당 0.7m, 2.1m, 4m를 각각 굴착한 결과 건설폐기물인 아스콘과 적벽돌,

페타이어, 슬레이트 등이 확인됐다. 이에 시는 토양오염 여부 확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시추지점 11곳에서 총 12개의 토양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불법매립 행위를 확인한 즉시 (유)금강농산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였으며, 역학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낙찰자 측에 시설물 철

거 중지 및 반출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암 발생과의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지하수 및 토양오염 조사를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는데도 낙찰자 측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시간제보육 지자체 보건복지부 장관상

익산시가 6일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18년 시간제보육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시간제보육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시는 '아이의 행복한, 육아가 즐거운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초 야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자 유일하게 휴일 야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긴급한 일시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영유아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보육 정책을 추진해 왔다. 7개 반의 최대의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제보육실은 주간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약이 마감되어 이용하기 어려울 정

도로 전국에서 순위권의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육 시책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에서 시간제보육 사업이 우수하다고 인정해주어 더 힘이 난다”며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육아는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는 동절기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대책을 세웠다.

시내버스 승강장 겨울 대비

군산시, 시내버스 승강장 방풍시설·온열의자 설치

군산시는 동절기 한파에 대비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생활밀착형 한파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에 방풍시설 및 온열의자를 설치한다.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최근 대중교통 지원사업(버스정류장 시설지원)에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국비 3억원을 활용, 방풍의자(탄소발열벤치) 30개소를 전 통시장 인근 또는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해 버스 이용객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할 계획이라

고 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상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현재는 T map 대중교통 어플을 통해 현재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 및 실시간 위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해당 어플을 통해 군산시 시내버스 실시간 도착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에이즈 예방 주간을 맞아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산시보건소, 세계 에이즈의 날 맞아 예방 홍보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는 세계 에이즈의 날과 에이즈 예방 주간을 맞아 에이즈 예방과 편견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에이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주요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관내 의료기관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에이즈 관련 홍보 콘텐트를 배포해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일에는 군산대학교 앞에서 젊은 층을 겨냥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쳐 에이즈 무료 익명검사 안내는 물론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물과 리플릿을 배부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에이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도입돼 꾸준한 치료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자발적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검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연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